

정 건 발 표 문

장애인체육 발전과, 장애인수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계시는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대의원 및 선거인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하나! 함께 도약!”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7대 회장 후보로 나선 **성 백 유** 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수영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수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체육학을 전공하고, 언론사 체육 취재부 수영담당 기사를 시작으로
세계인의 동계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과 세계수영인의
축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을 지냈으며, 몇몇 체육단체에서
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력과 경험을 통해 전 누구보다 더 체육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느끼며,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체육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포츠 경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장애인수영의 큰 축인 대한장애인수영
연맹 제7대 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일생의 마지막 도전과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때 보다 더 신중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임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의 불편함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도 훈련에 매진
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더불어 장애인수영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많은 자신감과 사명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저에게 전달되는 듯 느껴져 가슴이 벅차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가장 먼저 회장이라는 자리에
권위를 내려 놓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장애인수영 가족여러분 누구와도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수 방향만 생각하며 함께하는 리더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현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수와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소홀함 없이 모두 청취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주위 깊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일을 어느 특정인들이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끌어 간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에 벽에 막히기 때문에 끝은 독단적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 시 되어야하는 선수분들에게 더 나은 훈련환경과 지원을 위해 묵묵히 보람만으로 열정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시,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들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중앙연맹을 잘 이끌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무국과 시,도 지부연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순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 자랑스럽고 보람이 넘치는 연맹, 단합과 소통이 잘 되는 연맹, 가장 모범적인 연맹을 꼭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라는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 수영은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연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지원 확대, 다양한 훈련지원프로그램을 도입, 각종 대회개최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훈련여건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과 공식후원사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체결하는 등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 확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솔선수범하고 공약사항 등 흐트러짐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모든 수영가족분들에게 동등하고 투명한 행정제공과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에서 오해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언제나 각 시,도 여러 임원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연맹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의 발전방향성을 바르게 제시하고, 더 나아가 수영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월

제7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후보 성 백 유 배상.